또 한번
스크린 공략
감동은 계속 된다

〈괴물 2〉

〈마음이 2〉

속편들의 귀환

‘고사 2’ ‘마음이 2’ ‘넘버3 투’ ‘괴물 2’… 전편 후광 업고 스크린 대기

‘공부의 신’ 김수로 고사 2서 선생님으로 캐스팅

코믹배우 성동일 ‘넘버 3 투’서 조폭 태주 역으로

잔잔한 흥행을 일으켰던 속편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 이미 인지도를 얻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어필하기가 수월한 게 속편의 특징. 하지만 올초 개봉했던 ‘주유소습격사건 2’와 ‘식객 2’의 저조한 흥행 성적이 말해주듯, 속편이라고 모두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지난 2008년 여름 개봉, 1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공포 영화 ‘고사’는 2년만에 속편을 제작한다. ‘고사 2’가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화려한 캐스팅.

‘고사2’에는 드라마 ‘공부의 신’에 출연했던 김수로와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황정음이 교사와 교생으로 출연한다. 김수로는 ‘울학교 이티’를 포함, 세번째 교사역을 맡았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라 하이틴 스타들도 대거 출연한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준혁 학생’ 윤시윤을 비롯, ‘공부의 신’에서 김수로와 호흡을 맞췄던 티아라의 지연, ‘선덕여왕’의 박은빈, ‘보석비빔밥’의 최아진 등이 캐스팅됐다.

한석규와 신은경이 출연했던 ‘미스터 주부 퀴즈왕’을 만들었던 유선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중고생들의 방학기간인 7월 개봉한다.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하다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최근 드라마 ‘추노’의 추노꾼 천지호와 영화 ‘국가대표’를 통해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던 성동일은 영화 ‘넘버3 투’에는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편에서 한석규가 연기했던 조폭 태주역을 맡을 예정이다.

송능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넘버 3’는 한석규·최민식의 걸출한 연기와 당시 조역급인 조필로 출연했던 송강호가 눈에 띄었던 작품으로 이번에 13년만에 속편이 만들어진다.

5월 중 촬영을 시작할 ‘넘버 3 투’는 ‘원스 어펀 어 타임’, ‘홍길동의 후예’ 등 코믹 장르에 장기를 발휘해온 정용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예정이다.

유승호가 주연을 맡았던 ‘마음이’의 속편 ‘마음이 2’는 현재 촬영을 모두 마치고 4월말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마음이 2’는 엄마가 된 마음이가 어리버리 악당 ‘필브라더스’에게 납치된 막내 ‘장군이’ 구출에 나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편에도 출연했던 연기견(犬) 달이가 이번엔 여럿 강아지를 슬하에 둔 엄마로 변신했다. 또 전편의 유승호에 이어 마음이의 새로운 파트너로 드라마 ‘산부인과’ KBS 음악프로 ‘뮤직뱅크’의 송중기가 출연한다.

코믹 형제 ‘필브라더스’는 성동일과 ‘히트’ 등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 김정태가 출연, 웃음을 책임진다. 감독은 수애 주연의 ‘가족’을 만들었던 이정철 감독이다. ‘마음이’는 개봉 당시 130만명의 관객을 모았었다.

‘아바타’이전까지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했던 ‘괴물’ 역시 속편이 제작될 예정이다. 2000년 독극물 한강방류 사건에서부터 2006년 한강 괴물 출몰 사이 괴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괴물 2’는 싱가포르 영화사 보쿠 필름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전편을 능가하는 CG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폭풍전야

‘비담’ 김남길 주연 사랑에 상처받은 남과 여 또 다른 사랑이야기

탈옥수와 상처 입은 여자가 만들어가는 비극적 사랑이야기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아내의 남자 때문에 살인죄로 복역중인 수인은 에이즈에 걸린 상병의 피를 몰래 수혈하고 입원 치료 도중 탈옥한다.

상병은 자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애인 미애를 대신해 감옥에 들어와 있던 상태. 탈옥하면 미아에게 들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상병의 부탁을 받은 수인은 상병이 소식을 궁금해했던 여인 미아의 카페로 찾아든다.

탈옥 후 자신의 복수 대상이었던 남자가 자살해버리자 허탈감에 빠진 수인은 미아와 만나면서 점차 그녀에게 빠져든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 역을 맡았던 김남길과 영화 ‘미쓰 홍당무’, TV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등에 출연한 황우슬혜가 주연을 맡았다. ‘피터팬의 공식’을 만든 조창호 감독의 두번째 작품이다. 조 감독의 전작처럼 주인공의 마술이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